

“학생은 고객 아닌 가르칠 대상”

홍기삼 前 동국대 총장 불교문화연구원 학술회의서

“학생은 고객이 아니라 엄히 꾸짖고 가르쳐야 할 대상이다. 엄히 가르치되 그 보다 깊은 사랑으로 항상 보살피고 혼신의 힘을 다해 미래를 열어줘야 한다.”

대학가를 휩쓴 기업경영 마인드를 비판하며 진정한 대학교육이 무엇인가에 대한 주장이 나와 눈길을 끈다.

홍기삼 前 동국대 총장은 5월 30일 동국대 불교문화연구원(원장 혜원)이 ‘한·중·일 삼국의 불교와 인문학의 소통’을 주제로 연 학술세미나 기조강연에서 인문학 위기를 진단하고 인성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홍기삼 前 총장의 이번 강연은 동국대 총장 퇴임 이후 첫 공식행사 참여다. 강연에서는 상시입학정원관리시스템 등 동국대 내부 반발을 대변해 ‘대학 구조조정 전도사’라 불리는 오영교 총장(동국대)에게 던진 메시지라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홍기삼 前 총장의 기조강연 중 인문학 위기의 원인을 진단하고 비판한 대목은 오영교 총장의 대학 현실을 지나라하게 보여줬다.

홍기삼 前 총장은 “대학을 슈퍼마켓으로, 교수를 슈퍼마켓 점원으로 설명한 총장도 있었다”면서, “대학도 경영의 대상이지만 무한이윤을 추구하는 기업경영과 달리 인간을 육성하는 교육경영이다. 상품(학문)을 팔기 위해 고객(학생)의 비위를 맞추거나 상품을 매개로 이득을 취하려는 기업적 경영마인드에는 반교육적 위험성이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교육자는 상거래가 끝나면 관계가 청산되는 상인이 아니다. 자식의 미래를 염려하는 부모와 같이 제자를 사랑하는 사람”이라며, “학자의 진정성을 이해해달라”고 주문했다. 교육행정에 대한 비판도 이어졌다. 홍 前 총장은 “교육부는 정원 축소와 지원금을 연계하는 등 대학에 압박을 가하고 있다. 대학과 학문저질화의 원인을 제공한 교육부는 대국민 사과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홍기삼 前 총장은 인문학 위기와 대학 및 교육행정의 반교육적 행태의 원인을 교육과 대학 본질에 대한 통찰이 부족하고 인문학



5월 30일 불교문화연구원 학술세미나에서 홍기삼 前총장은 인문학 위기를 진단하고 인성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적 소양을 갖추지 못한 인사들의 교육 참여 때문으로 봤다.

한편 지양정치양 연구원(중국 사회과학원 철학연구소)은 ‘중국의 현대성 시야로 본 근현대불교’에서 현대성의 시야에 맞춰 중국 근현대 불교 흐름을 살폈다. 그는 현대불교학의 방법이 불교의 본성과 어떻게 조화되는가가 중요하다고 발표했다.

남동진 교수(덕성여대)는 ‘한국 불교사의 인식과 방법론’을 발표

했다. 남 교수는 “한국불교의 특성으로 호국불교가 주목돼 왔다”고 말했다. 그는 “경전에서 말하는 호국은 국왕이 각종 재난에서 국토를 지키는 것이다. 호국을 불교가 위로부터 국가(국왕)를 수호하는 것으로 해석한 것은 잘못”이라 지적했다.

김승호 교수(동국대)는 ‘승가문학에 있어 자아표출과 그 문학사적 의의’를 통해 “답론 주제로서의 자아의 현시 여부가 유가문학

과 승가문학을 가름 짓는다”고 주장했다.

오오타니 에이이치 연구원(일본 남산 종교문화연구소)은 ‘근대 일본불교사 연구의 방법론’에서 근대일본불교사 연구방법론을 ▲역사학적 접근 ▲사회사적 접근 ▲제도사적 접근 ▲문화사적 접근 ▲사상적 접근 ▲구조주의 접근 등으로 설명했다.

조동섭 기자 cetana@buddhapia.com

“석가모니 가르침은 탈권력”

김호성 교수 인도철학회에서 주장



5월 30일 부산 동아대에서 열린 인도철학회 춘계학술대회에서 ‘힌두교의 불교에서의 권력과 탈권력의 문제’를 발표한 김호성 교수(좌).

제18대 총선 이후 불교의 정치참여가 회자되는 가운데, 석가모니의 근본 가르침은 ‘탈권력’이라는 주장이 제기돼 눈길을 끈다.

5월 30일 부산 동아대에서 ‘인도 철학과 정치이념’을 주제로 열린 인도철학회(회장 법산) 춘계 학술대회에서 김호성 교수(동국대)는 ‘힌두교와 불교에서의 권력과 탈권력의 문제’를 발표했다. 2008년 4월 9일 제18대 국회의원 선거 당시 기독교당과 평화통일가정당의 출현을 정교분리를 훼손하는 사건으로 규정된 그는 “불교계에서도 정치참여에 대한 논의가 있었을 것”이라 전제했다.

김 교수는 불교의 정치참여에 대해 <바가바드기타>의 왕법과 해탈론의 겸수론과 <붓다차리타>의 해탈법 전수(傳修)를 통해 설명했다.

김 교수는 “왕법과 해탈법의 겸수와 전수를 극명히 나타낸 것이 <붓다차리타>”라고 말했다. 그는 “<바가바드기타>에서 아르주나는 가주

기에는 왕법을 실천했고, 노후에 임서기를 맞아 해탈법을 실천했다”면서 “<붓다차리타>는 임서기에 행해야 할 수행을 가주기부터 실천했다”고 비교했다. 김호성 교수는 “불교의 입장은 왕법을 겸수하던 힌두교와 달리 해탈법만을 전수하는 출가주의적 입장이었다. 이는 권력이 아니라 탈권력을 뜻한다”고 주장했다.

조동섭 기자

#고대 인도사회는 삶 ▲스승 밑에서 학습하는 청년 시절의 범행기(梵行期) ▲가정에서 생활하며 가장으로서의 의무를 다하는 가주기(家住期) ▲가정과 재산을 이데에서 물려주고 속 속에 들어가 은거하는 임서기(林棲期) ▲숲 속의 거처까지 버리고 완전한 무소유로 걸식하고 다니는 길에서 죽음을 맞이하는 생활에 들어가는 유행기(遊行期)의 4단계로 나뉘었다.

한국불교학회 김선근 회장 체제 출범

6월 19일, 박세일 교수 초청 강연으로 활동 시작



사단법인 한국불교학회가 6월 1일 김선근 회장(동국대 교수·사진) 체제 출범으로 새 전기를 맞았다. 김선근 회장은 2007년 11월 17일 제34회 한국불교학회 평의회의에서 선출됐으나 제4차 불교학결집대회 이후로 회장 임기가 늦춰졌다.

6월 3일 인사동에서 기자간담회를 연 김선근 회장은 “정법을 보편화 하는 학회, 교단을 빛나게 하는 학회, 불교를 세계화 하는 학회” 슬로건에 맞춰 학회운영을 하겠다”며

해주 스님(동국대), 김상현 교수(동국대), 김용표 교수(동국대) 등을 부회장으로, 학술이사 조성택 교수(고려대), 기획이사 안성두 교수(금강대), 총무이사 하준승 교무처장(동방불교대학) 등 임원진을 발표했다.

김 회장은 “각 전공 및 종립학교, 지역 등 모든 것을 안배해 한국불교학 발전을 위한 인재를 두루 등용했다”며 임원진 선임 배경을 설명했다.

한국불교학회 임원진은 5월 31일

부대 6월 1일 서울교육문화회관에서 워크숍도 가졌다. ▲학회의 적법 운영 강조 ▲매학기 2회 상임이사회의 정례회 등을 결의하고, 불교학술진흥상 지원 확대, 산스크리트어 표현 등 불교학술용어 3000여개를 학술지 등을 통해 상용화할 계획도 정했다.

한국 불교학의 세계화를 위해 학회 홈페이지를 개편·보완해 영문정보를 제공하고, 연 1회 영문저널도 발간한다. 세계최고 석학을 초청

해 국제학술회의도 연다. 학회가 발행하는 <한국불교학>도 학인 학술지 등재 유지를 위해 편집위원회와 별도로 문장교열위원회 등을 둔다. 또 인문 사회 학 분야 SCI인 A&HCI(Arts & Humanities Citation Index) 등재를 추진한다.

한국불교학회의 새 비전은 ‘일류 학회를 통한 인재발사’로 요약된다. 김 회장은 “33천에 기인한 3만3000명의 월 1만원 내기 운동을 전개하겠다”며 교계의 지속적인 관심을 당부했다.

한편 한국불교학회는 6월 19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국제회의장에서 ‘불교선진화 어떻게 할 것인가’를 주제로 박세일 교수(한반도선진화 재단 이사장, 서울대 교수) 초청강연을 연다. 조동섭 기자

‘승가교육’ 7집 발간

조계종 교육원 불학연구소(소장 현종)가 <승가교육> 7집을 발간·보급한다.

<승가교육>은 격년 발행되는 승가교육기관 전문지로 2년간 진행된 교육과 종지 중흥에 관련된 사업을 점검해, 승가교육의 대안을 제시해 왔다.

<승가교육> 7집에는 ▲<금강경> 표준본 편찬 ▲<선원정규> 편찬 ▲간화선 대중화 사업 ▲<선요> 등 강원교재 해설 논란 ▲불암사 결사에 등장했던 혜명 스님과 묘연 스님 인

터부 등 최근 종단에서 이슈화 되고 있는 문제를 비중 있게 다뤘다.

불학연구소 현종 소장은 “<선요> <도서> 등 종단별 승가교육교재에 대한 교계의 다양한 의견을 담았다. <승가교육>을 통한 활발한 토론이 교재 표준화 작업으로 이어져 종단 정체성 확립의 기회가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한편 <승가교육>의 강원교재 해설·토론 등은 <선요> 등에 대한 학술적 해설의 다양성을 열어놓는 계기로 평가된다. 노덕환 기자

건봉사 템플스테이 및 수련회 실시

석가모니 부처님 진신지아사리를 친견할 수 있는 금강산 건봉사는 아마도 엽불 만일 기도도량이자 입관당시 사명대사가 승군을 일으킨 호국도량입니다. 이 유서깊고 아름다운 천년고찰 건봉사에서 배편 생활에 지친 분들의 삶의 재충전을 위해 템플스테이를 다음과 같이 실시하오니 많은 동참 바랍니다.

일시

- ◆일시: 1차 2008년 7월 11 ~ 13일 (2박 3일, 일반인 선착순 30명)
- 2차 2008년 7월 18 ~ 20일 (2박 3일, 일반인 선착순 30명)

- ◆참가비: 70,000원
- ◆준비물: 필기도구, 운동화, 우산
- ◆입금계좌: 농협 247-01-251767(예금주: 건봉사)

※기타 자세한 사항은 건봉사 총무소로 문의 바랍니다.
☎ 033)682-8100~2,011-9800-5798 / 팩스 682-5994

우)219-900 강원 고성군 거진읍 냉천리 36번지
대한불교 조계종 금강산 건봉사 주지 합장

신비의약차열매 영로코넛 (태국산)

열대지방에서 고대로부터 정쟁중 병사들의 전염병을 치료하는 약으로 사용된 신비의약차열매

맛. 품질보장

전국 무료배송!!!

- 20kg(36~40과): 90,000원
- 10kg(13~20과): 50,000원

■판매처: (주)굿모닝푸드시스템 031)794-1418
■입금계좌: 국민은행 596401-01-160654
예금주 (주)굿모닝푸드시스템

한글본 경용 불교상용의식집

경용의식집 5권이면 엽불 [한글엽불·한문엽불]에서 경전공부까지 다른책이 필요없게 만들었습니다.

내용 소개

- ①한문엽불(기초엽불)과 한글엽불(경전내용으로 조직)을 집전자가 누구든지 자유롭게 선택하여 집전할 수 있도록 만들었습니다.
- ②경전의 내용으로(한글엽불+한문엽불)과 곁하여 조직하므로 독송 또는 읽음으로써 엽불과 경전공부를 동시에 할 수 있게 만들었습니다.
- ③경용의식집은 엽불의 순서대로 조직하여 누구든지 쉽게 집전할 수 있게 하고 엽불을 위주로 간편하게 편찬하여 소장용이 되지 않도록 만들었습니다.
- ④경용의식집은 엽불 중 '운운'을 없애고 집전자의 작은 에로까지 배려하여 엽불이 약한 집전자도 부담없게 만들었습니다.
- ⑤엽불방법 한가지 소개한다면 23삼청하는 청사(2청은 한문, 1청은 우리말) 엽불한다면 엽불과 경전공부를 한번에 하게 되므로 별도의 노력없이도 우리말 엽불을 쉽게 할 수 있게 될것을 확실합니다.

구성

- 제1권: 예경, 각청편 15,000원
- 제2권: 천도, 시식편 15,000원
- 제3권: 수계, 방생편 12,000원
- 제4권: 장의편 12,000원
- 제5권: 점안편 13,000원

※불서총판 운주사 및 전국 불교서점에서 각권 별도 판매합니다.

문의 및 주문전화
전화 054)974-1345 핸드폰 011-277-8024
불서총판 운주사 02)3672-718 (농협 211012-52-203756 박명덕)

21세기 불자 자가(自家)기도법

해조(解調) 범산(梵山)스님이 쓰신 불자 한 사람이 꼭 한 권씩 수지 독송해야 할 “21C 불자 자가 기도법”이 드디어 불자들에게 선물 보급입니다.

이 책은 한글본 아는 사람이면 자기 집에서 혼자 충분히 기도할 수 있도록 저술하였으므로 불자들에게는 필수적인 경서입니다.

· 해조(解調) 범산(梵山)스님
· 1949년 전남 순천출생
· 東山 無盡 큰스님을 은사로 득도 수계
· 법우부 법치(법) 자원봉사위원 역
· 대한불교 원효종 경남종무원장, 중앙종회의원 역
· 한해종교대학, 대학원교수
· 한양종교대학 객원교수
· 한어려움 주지

[논문]
· 인도불교의 철학적 고찰
· 불교의 선정사상에 대한 연구
· Buddhism과 인도철학의 제학(제)의 비교 연구
· 경상성에 대한 고찰
· 독서문화의 정착 방안에 관한 고찰 등

[저서]
· 그 속에 길이 있었다 · 웃으며 가는 저승길
· 공서 국역상용법집 · 외 전문분야 다수

신간

21C 불자 자가(自家) 기도법

[차례]
제 1장-기본합송
제 2장-중요경전
제 3장-불공편
제 4장-진언과 다라니
제 5장-각종발원문
제 6장-기도체현수기
제 7장-불서출판수자공덕
제 8장-내면탐사와 여래33천통기도
제 9장-자가기도법
제 10장-불교기초지식
제 11장-권선문

◆택배발송 (발송비 무료) ◆정가 30,000원
◆문의: 055-761-7462 / 011-552-3222
◆계좌번호: 농협 801032-51-032261
우체국 610790-01-001194 (예금주: 여래암)
◆24시간 상담환영 홈페이지 www.yeraeam.com